

# 자기와 맞는 사람은 없다. 자기가 맞추며 살아야지

법륜 스님, '영108과 법륜 스님의 신나게 혼나는 여행' 서 희망 전달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이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의 영108 젊은 불자들을 위한 강연에 나섰다. 법륜 스님은 11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진행된 '영108과 법륜 스님의 신(新)나게 혼(婚)나는 여행-법륜 스님 불교청년에게 한소리 하다' 에서 고뇌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스님은 젊은 불자들의 모임인 영 108 회원들과 대중들을 위해 대담과 즉문즉설을 통해 청년들이 나아가야 할 수행 방향과 자세, 마음가짐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대담의 요지이다. **정리=이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서용근(영108 회원):** 불교가 좋은 건 알겠는데 청년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

**법륜 스님:** 불교 뿐 아니라 기성 종교들도 젊은이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젊은 이들은 불교든 기독교든 종교자체를 별로 중요시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비상식적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진리는 고사하고 상식적인 전도 수준은 돼야 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종교의식·교리·행동이 상식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부처님 계시던 시절을 보면 부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지만 나이가 든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이에 대한 일화가 있다. 부처님 시절에 방황하는 청년들이 있었다. 남·여 30명이 짝을 맞춰서 야외로 놀러갔는데 한 사람이 여자 친구가 없어서 유녀(遊女)를 데리고 갔다. 다들 술 마시고 놀다 취해서 쓰러져 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그 유녀가 패물을 모두 챙겨서 도망갔다. 젊은이들은 여자를 잡으러 가다가 부처님을 만났다. 젊은이들이 "여기 한 여자가 도망가는 것을 못 봤습니까?" 하자 부처님은 "왜 그러느냐?" 했다. 이어 젊은이들이 "그 여자가 우리 패물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하자 부처님은 "잃어버린 자아를 찾는 것이 중요한가, 잃어버린 패물을 찾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물었다. 이 말에 젊은이들은 단박에 깨달음을 얻고 출가를 했다.**

그 당시 사회적 변화기에 방황하는 청년들이 패락에 젖어 있을 때 새로운 가치와 희망을 준 사람이 부처님이었다. 당시 종교인 브라만교는 관념적이고 권위적으로 변질 돼 젊은이들에게 아무런 호감을 주지 못했다. 반면 불교는 젊은이들에게 획기적인 호감을 얻어 수많은 출가자들을 배출했다.

불교는 현재 방식으로는 젊은이들에게 호감을 얻기 어렵다. 기성정치권은 여·야·진보·보수로 나뉘어 싸우는데 젊은이들에게는 그들 모두가 자신들에게 무관심한 기성세대일 뿐이다.

발상자체가 달라야 청년들을 끌어들이 수 있다. 불교든 다른 종교든 부처님처럼 젊은이들의 문제에 새로이 접근해야 한다.

**법륜 스님:**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고 명상을 할수록 행복해지고 편안해 지는 것을 느낀다. 이런 경험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은데 쉽게 잘 안 따라온다.

**법륜 스님:** 내가 좋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문제로 고뇌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무엇을 하자" 이런 것 보다 먼저 얘기를 들어줘야 한다.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문제로 고민하는가를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나도 그런 고민이 있어서 이런 경험(명상이든 불교공부이든)을 했더니 참 좋더라" 등 자기 경험을 통해 상대방에게 신뢰를 쌓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젊은이들은 명상을 통해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체질적으로 들떠있기 때문에 거부 반응도 일으킨다. 그럴 때는 절을 하면 좋다. 약간 다리가 아프지만 조금만 참으면 할 수 있다. 땀도 나고 운동한 맛도 나고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젊은 자신을 낮추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이렇게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미선(영108회원):** 명상을 열심히 하는 동생이 있는데 할 때는 마음이 편하고 좋는데 현실로 돌아오면 괴리감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법륜 스님:** 첫째는 선원에 가 있는 동안 만이라도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이득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일상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껴야 한다.

가만히 앉아서 호흡을 하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열심히 하면 일상 속에서 화가 날 때 자기가 화나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챌 수 있다.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버렸으면 '아 내가 화를 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주의 를 해야 한다.

수행을 하는데 '난 왜 안 돼지?' 라는 생각을 하면 자기 학대, 비하가 생긴다. 넘어지면 넘어졌구나 생각해야지. '왜 난 자꾸 넘어졌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넘어지면 다만 일어나고 앞으로 갈 뿐이지 주저앉아서 넘어진 것을 한탄하면 안 된다. 이게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할 원칙이다.

**법륜 스님:** 첫째는 선원에 가 있는 동안 만이라도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이득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일상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껴야 한다.

가만히 앉아서 호흡을 하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열심히 하면 일상 속에서 화가 날 때 자기가 화나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챌 수 있다.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버렸으면 '아 내가 화를 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주의 를 해야 한다.

수행을 하는데 '난 왜 안 돼지?' 라는 생각을 하면 자기 학대, 비하가 생긴다. 넘어지면 넘어졌구나 생각해야지. '왜 난 자꾸 넘어졌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넘어지면 다만 일어나고 앞으로 갈 뿐이지 주저앉아서 넘어진 것을 한탄하면 안 된다. 이게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할 원칙이다.

수행을 하는데 '난 왜 안 돼지?' 라는 생각을 하면 자기 학대, 비하가 생긴다. 넘어지면 넘어졌구나 생각해야지. '왜 난 자꾸 넘어졌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넘어지면 다만 일어나고 앞으로 갈 뿐이지 주저앉아서 넘어진 것을 한탄하면 안 된다. 이게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할 원칙이다.

수행을 하는데 '난 왜 안 돼지?' 라는 생각을 하면 자기 학대, 비하가 생긴다. 넘어지면 넘어졌구나 생각해야지. '왜 난 자꾸 넘어졌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넘어지면 다만 일어나고 앞으로 갈 뿐이지 주저앉아서 넘어진 것을 한탄하면 안 된다. 이게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할 원칙이다.

수행을 하는데 '난 왜 안 돼지?' 라는 생각을 하면 자기 학대, 비하가 생긴다. 넘어지면 넘어졌구나 생각해야지. '왜 난 자꾸 넘어졌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넘어지면 다만 일어나고 앞으로 갈 뿐이지 주저앉아서 넘어진 것을 한탄하면 안 된다. 이게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할 원칙이다.

수행을 하는데 '난 왜 안 돼지?' 라는 생각을 하면 자기 학대, 비하가 생긴다. 넘어지면 넘어졌구나 생각해야지. '왜 난 자꾸 넘어졌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넘어지면 다만 일어나고 앞으로 갈 뿐이지 주저앉아서 넘어진 것을 한탄하면 안 된다. 이게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할 원칙이다.

수행을 하는데 '난 왜 안 돼지?' 라는 생각을 하면 자기 학대, 비하가 생긴다. 넘어지면 넘어졌구나 생각해야지. '왜 난 자꾸 넘어졌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넘어지면 다만 일어나고 앞으로 갈 뿐이지 주저앉아서 넘어진 것을 한탄하면 안 된다. 이게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할 원칙이다.

수행을 하는데 '난 왜 안 돼지?' 라는 생각을 하면 자기 학대, 비하가 생긴다. 넘어지면 넘어졌구나 생각해야지. '왜 난 자꾸 넘어졌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넘어지면 다만 일어나고 앞으로 갈 뿐이지 주저앉아서 넘어진 것을 한탄하면 안 된다. 이게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할 원칙이다.

수행을 하는데 '난 왜 안 돼지?' 라는 생각을 하면 자기 학대, 비하가 생긴다. 넘어지면 넘어졌구나 생각해야지. '왜 난 자꾸 넘어졌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넘어지면 다만 일어나고 앞으로 갈 뿐이지 주저앉아서 넘어진 것을 한탄하면 안 된다. 이게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할 원칙이다.



11월 5일 불교여성개발원의 '영108과 법륜 스님의 신나게 혼나는 여행' 에서 고뇌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전달하고 있는 법륜 스님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번뇌  
내 앞의 상황이 수행의 대상이 돼야

망을 내려놔야 해탈로 가는데 깨달음이 욕망과 결합이 될 때 수행이 합쳐지고 지친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절망하게 된다. 수행을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미선(영108회원):** 명상을 열심히 하는 동생이 있는데 할 때는 마음이 편하고 좋는데 현실로 돌아오면 괴리감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법륜 스님:** 첫째는 선원에 가 있는 동안 만이라도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이득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일상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껴야 한다.

가만히 앉아서 호흡을 하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열심히 하면 일상 속에서 화가 날 때 자기가 화나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챌 수 있다.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버렸으면 '아 내가 화를 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주의 를 해야 한다.

수행을 하는데 '난 왜 안 돼지?' 라는 생각을 하면 자기 학대, 비하가 생긴다. 넘어지면 넘어졌구나 생각해야지. '왜 난 자꾸 넘어졌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넘어지면 다만 일어나고 앞으로 갈 뿐이지 주저앉아서 넘어진 것을 한탄하면 안 된다. 이게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할 원칙이다.

수행을 하는데 '난 왜 안 돼지?' 라는 생각을 하면 자기 학대, 비하가 생긴다. 넘어지면 넘어졌구나 생각해야지. '왜 난 자꾸 넘어졌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넘어지면 다만 일어나고 앞으로 갈 뿐이지 주저앉아서 넘어진 것을 한탄하면 안 된다. 이게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할 원칙이다.

수행을 하는데 '난 왜 안 돼지?' 라는 생각을 하면 자기 학대, 비하가 생긴다. 넘어지면 넘어졌구나 생각해야지. '왜 난 자꾸 넘어졌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넘어지면 다만 일어나고 앞으로 갈 뿐이지 주저앉아서 넘어진 것을 한탄하면 안 된다. 이게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할 원칙이다.

수행을 하는데 '난 왜 안 돼지?' 라는 생각을 하면 자기 학대, 비하가 생긴다. 넘어지면 넘어졌구나 생각해야지. '왜 난 자꾸 넘어졌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넘어지면 다만 일어나고 앞으로 갈 뿐이지 주저앉아서 넘어진 것을 한탄하면 안 된다. 이게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할 원칙이다.

수행을 하는데 '난 왜 안 돼지?' 라는 생각을 하면 자기 학대, 비하가 생긴다. 넘어지면 넘어졌구나 생각해야지. '왜 난 자꾸 넘어졌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넘어지면 다만 일어나고 앞으로 갈 뿐이지 주저앉아서 넘어진 것을 한탄하면 안 된다. 이게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할 원칙이다.

수행을 하는데 '난 왜 안 돼지?' 라는 생각을 하면 자기 학대, 비하가 생긴다. 넘어지면 넘어졌구나 생각해야지. '왜 난 자꾸 넘어졌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넘어지면 다만 일어나고 앞으로 갈 뿐이지 주저앉아서 넘어진 것을 한탄하면 안 된다. 이게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할 원칙이다.

수행을 하는데 '난 왜 안 돼지?' 라는 생각을 하면 자기 학대, 비하가 생긴다. 넘어지면 넘어졌구나 생각해야지. '왜 난 자꾸 넘어졌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넘어지면 다만 일어나고 앞으로 갈 뿐이지 주저앉아서 넘어진 것을 한탄하면 안 된다. 이게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할 원칙이다.

수행을 하는데 '난 왜 안 돼지?' 라는 생각을 하면 자기 학대, 비하가 생긴다. 넘어지면 넘어졌구나 생각해야지. '왜 난 자꾸 넘어졌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넘어지면 다만 일어나고 앞으로 갈 뿐이지 주저앉아서 넘어진 것을 한탄하면 안 된다. 이게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할 원칙이다.

수행을 하는데 '난 왜 안 돼지?' 라는 생각을 하면 자기 학대, 비하가 생긴다. 넘어지면 넘어졌구나 생각해야지. '왜 난 자꾸 넘어졌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넘어지면 다만 일어나고 앞으로 갈 뿐이지 주저앉아서 넘어진 것을 한탄하면 안 된다. 이게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할 원칙이다.

수행을 하는데 '난 왜 안 돼지?' 라는 생각을 하면 자기 학대, 비하가 생긴다. 넘어지면 넘어졌구나 생각해야지. '왜 난 자꾸 넘어졌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넘어지면 다만 일어나고 앞으로 갈 뿐이지 주저앉아서 넘어진 것을 한탄하면 안 된다. 이게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할 원칙이다.

수행을 하는데 '난 왜 안 돼지?' 라는 생각을 하면 자기 학대, 비하가 생긴다. 넘어지면 넘어졌구나 생각해야지. '왜 난 자꾸 넘어졌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넘어지면 다만 일어나고 앞으로 갈 뿐이지 주저앉아서 넘어진 것을 한탄하면 안 된다. 이게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할 원칙이다.

수행을 하는데 '난 왜 안 돼지?' 라는 생각을 하면 자기 학대, 비하가 생긴다. 넘어지면 넘어졌구나 생각해야지. '왜 난 자꾸 넘어졌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넘어지면 다만 일어나고 앞으로 갈 뿐이지 주저앉아서 넘어진 것을 한탄하면 안 된다. 이게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할 원칙이다.

수행을 하는데 '난 왜 안 돼지?' 라는 생각을 하면 자기 학대, 비하가 생긴다. 넘어지면 넘어졌구나 생각해야지. '왜 난 자꾸 넘어졌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넘어지면 다만 일어나고 앞으로 갈 뿐이지 주저앉아서 넘어진 것을 한탄하면 안 된다. 이게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할 원칙이다.

적이다. 그리고 자기 앞에 주어진 상황이 수행의 대상이 돼야 한다. 앉아서 호흡을 할 때는 호흡만 관찰하고, 상대와 대화를 할 때는 대화에 깨어있고 운전할 때는 운전대에 깨어있는 것처럼 매 순간 깨어서 현재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할 때 자기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은 망상을 하는 것이다.

**서용근:** 매 순간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일상생활에서 순간에 집중하기가 잘 안 된다.

**법륜 스님:** 회사에서 부장이 업무를 지시하면 지시에 깨어있어야 하고 야단을 치면 야단에 깨어있어야 한다. 내가 깨어있을 때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여러분이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군가와 싸울 때 그 상태를 지나고 나면 후회를 한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깨어있으면 지금 가장 잘 할 수 있다. 우리가 대화에 깨어있다면 그때 대답을 잘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대답을 잘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 이렇게 대답할 걸' 이라고 후회한다.

멋있게 말하려고 하거나 잘 보이려고 하거나 다른 곳에 정신을 빼앗겼기 때문에 적절한 내 수준에서 이야기를 못한 것이다. 항상 그 상태에 깨어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 안되면 다시 알아차리고 다시 깨어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내 이야기를 들을 때 '집중해야지' 하는 건 집중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다. '~해야지' 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다. 번뇌지.

명상할 때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다. 정정(正定, 고요함), 정명(正命, 뚜렷이 깨어 있어야 함),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 마지막은 정정진(正精進)이다. 하지만 명상을 할 때 자꾸 놓치게 된다. 놓치면 다시해라. 또 놓치면 다시해라. 그것이 정진이라는 의미다. 놓쳤을 때는 놓친걸 알아차리고 다만 그렇게 할 뿐이고 돌아가면 된다. '왜 난 놓쳤지' 하게 되면 번뇌다. 잘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다. 대부분은 "왜 안 되지?" 라고 한다. 안 되게 정상 아닌가? 피아노를 처음 치는 사람이 '왜 피아노가 안 쳐지지' 하는 이런 생각은 공짜로 먹겠다는 것이다. 계속 연습해야 한다.

**서용근:** 짝을 찾으려는 젊은이들이 영 108에도 많다. 인연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 속에 상(相)을 정해놔서 짝을 찾는게 힘든건지 모르겠다.

**법륜 스님:** 길거리에 온갖 여자 남자가 있는데 짝이 없다는 것은 눈이 높아서 안 되는 것이다. 옛날에 선을 볼 때 중매자가 상대방의 조건을 살짝 속이기도 했다. 고졸인데 전문대 나왔다고 하고 전문대 나왔으면 4년제 나왔다고 하고. 서로를 조금씩 자신의 조건을 높이고 속이니까 막상 살아보면 내 기대치와 다르기 때문에 신혼 초에

갈등을 겪는다. 그래서 진짜 결혼하고 나서 행복해지려면 짝을 만났을 때 화장을 다 지우고 나가고, 평소에는 높은 구두를 신고 나갔으면 슬리퍼 신고 나가고 좋은 옷 대신 평범한 옷 입고 나가봐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서로가 맞출 수 있다. 그러다가 결혼할 때 예식장에서 신부가 화장한 모습을 보고 '우리 마누라 화장하니 억수로 이쁘네!' '우리 신랑 멋지네!'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신혼 생활이 좋다. 여러분들이 상대의 기준을 높여서 찾는 것이 불행의 원인이 된다.

**서용근:** 이는 누나가 남자 보는 눈이 높았는데 결국 그렇게 고르고 골랐는데 "결국 그놈이 그놈이더라"라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법륜 스님:** 맞는 사람이 어딴다. 맞춰야지. 맞추기 어려우면 나같이 혼자 살던지 해야 한다. 선택을 해야 한다. 내가 성격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닌데 만약에 결혼했으면 내가 고치든지 괴로워하든지 둘 중 하나다. 자기 성격이 원래 이런 줄 알던 거기에 맞게 살면 된다.

내가 스님으로서의 관점은 성격인데 결혼하기에는 절대로 좋은 성격이 아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사적인 여유로움은 전혀 없는데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나. 하지만 스님으로서의 존경을 받는다. 다 자기 기질에 맞게 사는 것이다. 자신의 카르마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내 성질대로 하면서 같이 살겠다. 내가 예쁜 여자와 결혼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자. 반드시 예쁜 사람은 예쁜 값을 하고 돈 많은 사람은 돈값을 한다.

한 남자가 어떤 여자를 3년 동안 따라다녀서 결혼을 하게 됐다. 남자는 목표가 달성됐기 때문에 보상심리가 생겨 결혼 후 행동이 돌변하기도 한다. 여기서 여자는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여자가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일 때 '저렇게 나에게 매달렸으니 내가 결혼 후에는 다진 빛을 다 झा아야 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승낙해야 하는데 '저 정도로 나한테 매달리니 결혼하면 편하겠다' 하고 승낙하면 오산이다. 자기 밖에 생각 못하는 것이다. 인간의 심리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자기 자신은 중생심으로 살면서 상대는 항상 보살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지만 내가 중생이듯 상대도 중생이다. 내가 한눈팔 수 있던 상대도 한눈팔 수 있다.

사랑의 핵심요소는 "이해" 라고 생각한다. 이해 없는 사랑은 폭력이다. 자기가 좋으면 상대방 배려 없이 자기 좋은 대로만

[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0-9호 ]

##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b>종정 명예증정</b>	<b>청봉 석정산 명진 석범운</b>	(중정실 사서실장 : 박선혜화) (중정실 경료실장 : 석법진)					
원로회회장 석충섭	원로부회장 석무공	원로부회장 석만월	승무원장 석원정	총회회장 석범일	기획원장 석범상	호계원장 석월오	감사원장 석동원
총무원 총무원장 석해운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다우	문화원 문화원장 석지명	사정원 사정원장 석현중	포교원 포교원장 석해운	교육원 교육원장 석무겸	
총무부장 석능현	호법부장 석운오	감찰부장 석지혜	문화부장 석해주		포교부장 석해통	부원장 석운오	
교무부장 석성오						부원장 석대명	
재무부장 석도현						부원장 석범오	
행사부장 석명오						1 국장 석대덕	
의전부장 석근홍						2 국장 석해인	

**◆ 입중 안내 ◆**

1) 입중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증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전동 656번지 불광사 ☎ 010-3565-2462, 070-4187-4747 / 055)364-4747 / FAX 055)364-4849 / 010-2840-8207

2) 입중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범용법첩 교육대학 9기생 모집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범패, 육효, 학인모집**

**양력 11월 5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강의함.**  
문의 전화 : 055)364-4747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화회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한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유사 대원불교조계종이 '진주'에 있어서도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남 이야기 말고 '내 눈 뜨기' 부터

한다. 그것을 사랑이라 표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집착'이다. 상대에 대한 배려, 이해가 기초가 돼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서용근: 불자들과 영108 회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법륜 스님: 대한민국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불평과 좌절이 많다. 하지만 "빈민국이나 오지에 가서 살래? 한국에서 살래?"하고 물으면 한국에서 살 거 아닌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살만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살만한 나라다. 난 거기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불교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많은 모순들을 볼 것이다. 그래도 다른 종교와 비교해보면 나은 면이 있다. 그래서 불교가 좋은 것이다. 자주 불교를 비판하다보면 좋은 점을 모른다. 자기가 놓여있는 현실에 대해 긍정해야 한다.

남편이 매일 술 마시고 들어와 힘들다고 하는 보살이 있다. 내가 그 보살에게 "술 마시는 남편 죽고 없으면 좋겠습니까?"하고 묻는다. 그러면 보살은 "죽으면 안되지요"라고 말한다. 그러면 나는 "그럼 남편이 가끔 술 마시고 뺀어서 뒤차다꺼리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중풍에 걸려서 매일 병간호를 하는 게 낫습니까?"하고 묻는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보살로 하여금 '우리 남편 술 마시는 거 괜찮네' 하는 것을 자각시키는 것이다.

'우리남편 문제야, 나쁜 놈이야' 이것은 상(想)이다. '그 사람은 술을 마신다'라는 하나의 행위만 있을 뿐이지 그 행위가 좋고 나쁜 것도 아니다. 이게 비상(非想)이다. 공(空)이다. 이것을 자각하면 괴로움이 없어진다. 앉아서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다 만 번 설명했잖아 인생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생활 속에서 터득을 해야 한다.

만약 내가 아팠는데 어떤 약을 먹고 나왔다. 지금 누가 그 병으로 인해 아프다. 그럴 때 우리는 "이거 한번 해봐라. 이거 한번 먹어봐라. 어디 수련 가봐라"고 권하게 된다. 자기가 그 문제를 풀었기 때문이다. 전법(傳法)이 금방 되는 것이다. 신뢰가 가기 때문에 상대에게 퍼지는 파급효과가 크다.

그래서 '내 눈 뜨기'를 먼저 해야 한다. 세상, 가족, 남편, 자식 이야기 하지 말고 그 속의 내가 먼저 눈을 떠야 한다. 그러면 바로 지금의 내 삶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 수행을 해야 한다. 그러나 수행자는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를 대면 안 된다. 남편이 어떻게 절이 어떻게, 스님이 어떻게



법륜 스님과 대담을 나누는 이미선과 서용근 영 108 회원 (왼쪽부터)

## 비판만 하다보면 좋은 점 몰라 자기가 놓여있는 현실 긍정해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자기를 먼저 봐야 한다.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일곱 걸음을 걸은 뒤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 삼계개고 아당안지(三界皆苦 我當安之)"라고 외쳤다. 우리는 첫 구절만 알지 두 번째 구절은 잘 모른다. 두 번째 구절의 뜻은 '삼계(천상계·인간계·지옥계)가 모두 고통스러우니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라는 뜻이다. 이것을 대승불교가 정리한 것이 상구보리 하화중생이고 성불과 정도이다.

때문에 이 정도의 길 즉, 아름다운 세상, 보다 나은 세상 만들기는 불교가 해야 할 본질적인 과제이다. 하지만 지금은 불교의 본질적 문제에서 벗어났다. 불교가 2500년 동안 사회적 지도력을 상실하고 전신 반하면서 결국에는 절름발이가 됐다. 이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물려받은 유산이다. 이런 '정통불교'가 아닌 '전통불교'이다. 우리는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정통이 아니다. 왜곡된 불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구절을 복원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수행을 해서 스스로가 우선 좋아야 한다. 스스로가 먼저 기쁨을 받고 난 뒤 '이 세상에 불법이 전파돼서 다른 사람들도 좋아져야 돼' 해야 한다. 이것이 전법이다. 그런데 불자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인연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다. 그들도 극락에 가야 한다. 나를 욕하는 사람들도 데리고 가야 한다. 이것이 보살사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개선해야 한다.

우리사회가 민족적으로 볼 때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이 평화 정착과 통일 문제다. '나는 수행하기 때문에...'라며 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수행은 하면서 하는 거다.

환경문제를 위해 활동하고 국민층을 보호해야 한다. 북한아들이라고 예외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누구와 같이 할 수 있을까. 개신교인들과 같이 할 수 있다. 어른들과 같이 할 수 있다. '기성세대들은 자기 생활에 빠져서 안주한다'라는 생각은 중생심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현실이 그렇더라도 젊은이들은 진흙에서 연꽃을 피우듯이 이걸 딛고 전체 이익을 위해 각성해야 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불교 신생활도 하고 또 연애도 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고 그런다면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불교가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하게 된다. 비불자들은 불교의 발전보다는 불교인이 우리사회의 민주화 변혁 통일 평화 등 사회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중요시 여긴다.

## 법륜 스님과 함께 하는 즉문즉설

즉문: 개신교가 불교에 대한 문화를 훼손하는 문제가 많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법륜 스님: 봉은사 땅밭기는 일종의 주

거침임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분명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니 이에 대해 대응을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얼마 전 문제 됐던 템플스테이 예산삭감도 마찬가지이다. 전통 사찰과 문화재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가가 국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불교의 원칙은 상대가 칼을 휘두른다고 나도 칼을 들고 막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고 쓰러지는 것이다. 국민의 권리를 주장해 이들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이익집단의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비불자들에게는 공간을 얻지 못한다. 불교를 넘어선 전체 이익을 위해 힘쓰다면 이미지가 개선되고 불교가 사회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다.

즉문2: 세계적 불교 인구는 늘고 있는데 한국 청년 불자는 감소 추세이다. 청년회를 이끌면서 법사 스님과 시스템은 한정돼 있어 많은 답답함을 느낀다.

법륜 스님: 기독교 문명이 만들어 놓은 현대문명의 폐해를 불교가 해결할 수 있다. 불교는 아쇼카시대, 당나라에 이어 제3의 부흥기를 맞이했다. 불교에 호시절이 왔다. 그러나 한국불교는 한국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불교의 장점은 많다. 지도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시작해야 한다. 불교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스님이 아니라 여러분이다. 수행을 바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 그것을 사회로 확대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 불교와 한의학

## 1.법화경 약초유품(藥草喻品)

### 근기에 맞춰 병을 치료하라

불교경전 중에는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는 과정을 의사가 병자를 치료하는 것에 비유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 <법화경> 약초유품(藥草喻品)은 이러한 비유를 사용한 대표적인 경전이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의료과정은, 엄밀히 말하면 한의학이라기보다는 경전 성립 당시 인도나 네팔에서 행해지던 보편적인 의학의 모습을 채용한 것이다. 즉 모든 질병을 관절질환(rheumatic disease), 소화기질환(choleric disease), 내분비질환(phlegmatic disease), 상한 체액에 의한 복합증(complication of the corrupted humours)의 네 종류로 분류한 데에서 당시 행해지던 보편적인 의학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이 네 종류의 질환을 경전에서는 각각 중생의 삼독심(욕심, 성냄, 어리석음)과 삼독심으로 인해 만들어진 62가지 삿된 견해(The sixty-two false theories)에 비유했다. 한문 해석은 각각 풍(風), 황(黃), 용(癩), 등분(等分)으로

### 모든 질병은 중생의 삼독심과 62가지 삿된 견해에서 비롯돼

되어 있는데, 등분(等分)은 앞의 세 가지 병을 고루 갖추고 있는 복합병으로 볼 수 있다.

한의학에서 풍병(風病)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풍(中風)을 포함해, 내적외적 요인에 의해서 개체의 기장(氣場; '오오'와 비슷함)에 질서가 무너지는 병을 말한다. 즉 모든 개체는 나름대로 각자의 기(氣)가 펼쳐지는 마당을 형성하고 있는데, 체외 혹은 체내의 어떤 원인에 의하여 이 기(氣)가 펼쳐지는 마당이 손상을 입게 되면 그 개체의 기(氣)가 비정상적으로 새어나가게 된다.

이 때 기(氣)가 비정상적으로 지나치게 발생되므로 발열이나 떨림 증상이 나타나고, 동시에 기(氣)가 새어나간 조직은 뻣뻣해져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

황병(黃病)은 황달(黃疸)과 같은 것으로, 음식을 소화해 흡수하고 찌꺼기로 내보내는 육부(六腑; 위, 담, 소장, 대장, 방광, 삼초)의 기능이 멈춘 것을 말한다. 원인은 육부에 더러운 것이 오래도록 쌓였거나, 간이나 담에 문제가 생겨서 육부의 음식 소화 작용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용병(癩病)은 소변 배설물



<법화경>

제가 생긴 병으로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자주 보게 되는 것을 말한다.

경전에서는 의사가 산 중의 왕인 히말라야에서 네 가지 종류의 약초를 구하고, 그 약초를 여러 가지 조제법이나 치료법으로 투여함으로써 장님이었던 병자가 시력을 회복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전제적인 내용을 보면 의사가 선제적인 장님이었던 병자에 대해 전생의 악업 때문이라고 병의 원인을 파악하고서도, 다시 네 가지 종류로 질병을 분류했다. 그런 다음 최상의 약초를 얻기 위해 히말라야에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히말라야에서 네 가지 종류의 약초를 구한 후에도 병자가 약 기운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약을 조제하고 처방을 구사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는 부처님이 각 중생의 근기에 맞게 제도하시는 과정을, 의사가 모든 의료지식과 환자에 대한 판단을 갖추고 온갖 정성과 세밀한 기술을 다 발휘해 각각의 병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치료하는 의료행위에 비유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의료는 매우 당연하게 생각되나, 사실 현대의 서양의학은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잘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한의학은 비슷하게 보이는 질병에 대해서도 환자 개개인에 따라 그 병리를 다양하게 파악하며, 그에 따라 치료법도 다르게 함으로써 환자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치료한다.

따라서 서양의학 보다는 한의학이, 중생의 다양한 근기에 맞추어 다양한 제도법을 구사하는 부처님의 의왕(醫王)으로서의 모습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류정아(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술연구교수)

# 붓다 자비 봉사단 모집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봉사단에서는

살아 숨쉬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숨결따라 12인연과 사무량심을 실천하고자

30 여년 국내외에서 헌신과 봉사로 포교 일선에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저희 불제자들은 평등한 마음으로 인간 방생, 중생 구제라는 사명으로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들이 즐거워 하는 것을 보며 저희들도 흐뭇한 마음으로 보람을 느끼곤 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는 후진국 극빈자들을 위해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마음과 행을 나눌 마음이 따뜻한 불자, 헌신과 봉사를 아는 불자들을 모집합니다. 모든 불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총재 : 목탁 혜은 봉사단장 : 보덕화 김천대

붓다 자비 봉사단

02)733-5665. 010-3618-6061